

민중의 애환 구비구비 서린 고갯길

백두대간 속으로 <20>

이화령→조령산→새재

길의 운명을 타고난 산등성이, 그것이 고개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산줄기의 두 꼭지점 사이, 산과 길이 만나는 곳, 이 고를 저 고를 넘나드는 길의 정수리. 그곳이 바로 고개다. 그래서 고개에서는 만남과 헤어짐, 순경(順境)과 역경(逆境), 안도와 초조, 희망과 절망이 씨와 날로 엮인다.

서낭당이 있는 곳에서는, 오가던 길손이 들무더기를 쌓아 올리며 나그네 길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재너머 새집으로 이사가는 새신랑 새각시는 부모들의 조상신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각시의 옷자락을 찢어 걸기도 했다. 더러 과거길에 오르는 선비에게는 비장한 각오를 더해 주기도 했을 것이고, 낙방길에는 또 밝은 숨을 토해내게 하여 저절로 울분을 가라앉히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개는 또 가라 한다. 부활은 회망도, 조급한 절망도 다 내려 놓고, 다시 새 길을 열어 가라 한다.

백 두대간의 마루에 오를 때에도 고갯길은 다릿뿔을 짚게 돌아가게 한다. 산을 넘는 가장 알은 길이자 가까운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산행의 시작과 끝은 현대 경상도 지방과 서울을 잇던 대표적인 고갯길이었던 '이화령'에서 '새재(鳥嶺)'까지다. 그러나 지금은 이 두 고개 모두 길로서의 기능은 거의 잃어버렸다. 새재는 1981년에 경상북도의 도립공원이 되면서 아예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고, 이화령 또한 터널이 깔리면서 거의 구실을 잃고 말았다.

조령산의 남쪽 돌머리인 이화령(548m)은 경북 문경시 문경읍과 충북 괴산군 연풍면을 잇는 고갯마루로 이 곳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우릿재'로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화현(伊火峴)'이라고

적혀 있으나 지금은 '이화령(梨花嶺)'이라 하는데, 이 또한 일제에 의해 바뀐 것이고 보니 '백꽃재'라는 꽤나 예쁜 뜻도 그리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화령에서 조령산(1,017m)을 오르는 길은 시작부터 깊은 산에 안긴 듯한 느낌이다. 산의 돌머리에서는 가능하면 느긋하게 걸을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산은 화들짝 안겨드는 사람보다 잔중하게 다가서는 사람을 더 반길 것이므로, 이

렇게 한 20분쯤 걸으면 기습 한 귀뚜아를 뒤덮은 돌너덜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또 그만쯤 걸으면 열기장이 나온다. 다시 조금 더 나아가면 골장 등성이를 걷는 길과 비탈로 약간 내려서는 갈림길을 만나는데, 요즘 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비탈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샘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성이만을 고집하는 산행에서 만나는 샘물이란, 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몇 안되는 호사 기회이므로 결코 놓칠 수 없다. 천천히, 낙차처럼, 물통이건 뱃속이건 양껏 채운 다음, 다시 등성이로 올라서면 열기장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의 눈빛은 탁월하다. 남쪽으로 백화산과 회양산, 멀리 속리산의 연봉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 주흘산도 자태를 드러낸다. 이곳에서는 조령산 정상이 코앞이다. 살갓이 내려섰다 다시 굽구치면 정상이다.

조령산에서 흔히 새재(650m)라 부르는 조령관(제3관문)까지는 결코 얇아 볼 수 없는 암릉의 연속이다. 잠깐이라도 다리의 긴장을 풀었다가는 불끈 뭉



문경새재 제3관문인 조령관. 백두대간의 마루에 앉아있다. 1981년부터 <문경새재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쳐오른 바위에 엉덩이를 내맡겨야 하는 순간이 계속 된다. 좌우 기슭 또한 깎아지른 듯하니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풍고생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끊임없이 절경이 이어지며 우리 산만이 지닌 그윽함과 아가자기함, 호쾌함과 우뚝함을 두루 보여 준다. 그렇다고 길살에는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짓이다. 눈 밝은 이리엔 숨다리(여덟바이스) 같은 활꽃도 눈인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표정을 가진 산이기 때문이다.

이러기를 몇 시간, 발바닥과 산의 피부가 서로에게 익숙해질 즈음, 저 멀리 남도 자락의 노랫가락이 절로 터져 나온다. 어느덧 새재에 이른 것이다.

문경새재는 왜 고개고 구부아구부아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가 났네. 아리랑 흥음을 아리아리가 났네.

이리하여 문경새재는 '보통명사'가 된다. 새재와는 달달만담도 관계가 없는 진도에서도 구비구비 눈물나는 고개는 새재인 것이다.

추풍령을 넘으면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고, 죽령을 넘으면 미끄러지지만, 이 고개를 넘으면 장원 급재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聞慶)' 하여, 과거에 뜻을 둔 영남의 선비와 하얀 뱃머리고 넘었음 문경새재. 더욱이 부산의 동래에서 한양에 이르는 이른바 영남대로가 지나던 백두대간의 으뜸고개였으니, 고개에 걸린 얘기 또한 진도아리랑의 사실만큼이나 구비구비가 아닐 수 없으리. 임진왜란과 신립(申誼, 1546~1592)에 얽힌 얘기는 꼽아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역사책을 펼칠 생각은 없다. 때론 골이 밍기 힘든 전설이 역사를 더 정직하게 반영하므로, 물론, 불명한 역사에 얽힌 전설일수록 역사에서는 허용치 않는 가정을 담고 있긴 하다. 하지만 후세 사가들의 역사 또한 단순의 형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역사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집단 창작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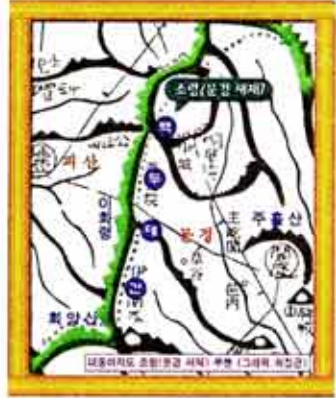
산인 전설에 더 솔깃할 수밖에 없다.

전설은 이렇다. 때는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신립을 삼도순변사로 임명하고 보검을 하사하였다. 이에 신립은 80여명의 군관과 수백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충주로 내려갔다. 이어 부장들을 거느리고 새재로 가서 지형을 살핀즉, 전역의 열세인 아군이 천연의 요새인 이곳에 숨어 있다가 왜군을 덮치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에 한 처녀가 나타나 충주의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칠 것을 호소했고 이를 따른 신립은 대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처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일찍이 주흘산의 요귀로부터 신립이 구해낸 처녀였는데, 자신의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립에게 원한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원귀가 되었다고 한다.

후세 사가의 말은 이렇다. 자신의 주력군이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산악전을 피했고 결과는 패배. 조선 땅은 아수라장, 신립은 탄금대에 투신.

어쩌면 처녀 귀신은, 삼척 동자라도 당연히 구사했어야 할 전술을 포기한 신립(지배자)에 대한 민중들의 원망과 비웃음의 상징이 아닐까. 모욕지기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여럿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일이다.

산은 참, 별 것도 다 가르쳐 준다. 글=문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백두대간의 한 부분을 이루는 조령산 능선. 기묘모양한 암봉이 절경을 이루고 있고 동으로 주흘산, 서로 활악산을 비롯하여 조망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지장보살님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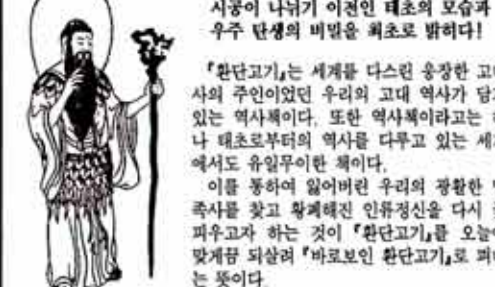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어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연락 바랍니다.

금주산 악수물로 만든 악수 탄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환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나, 맥주10가마나, 큰동 10개를 주시면서 만민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낫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탄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 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종면 금주리 산25-8
TEL: (031) 533-4405 FAX: (031) 532-3444

바로보인 환단고기



사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단장의 비밀을 최초로 밝히다!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공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담겨 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끔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되새기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1권은 민족정신의 경우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 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4권에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 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 정신과 물질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조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시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동책 전5권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신심경
바로보인 벽암록 영원한 현신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벗쳐서 세상을 벗쳐서
○ http://www.zenparadise.com ☎ 597-2460

보덕현호 시집 사랑과 詩 바람의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땀과 습니다. 여인 하늘을 나르는 나비도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당신이 열고 있으면 바람은 당신을 감싸며 습니다. 당신이 닫고 열려려 해도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속에도 입가에 도 열리는 손끝 흔들리는 옷자락에도 바람은 살서서 숨어 있지요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듯이 바람은 항상 우리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것을 감싸고 달래주면서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가며 허공에 나래를 펼칩니다.
A5신 144쪽 값 4,500원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맹성시집
정하의 빛 - 값 4,500원
고향의 숨결 - 값 4,500원
달마를 보라 - 값 5,400원
해 달 - 값 5,000원
마음의 창 - 값 7,200원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4
Tel: (041) 867-4000 Fax: (041) 867-4001

남여 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경, 법고)다루는 법, 도량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유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전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법당 불상 행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불공 기도 축원법 (삼보통칭 관음지장산중 산신 철성 독성 발원)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 개설 사업 운영 등
◆ 모집인원: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도량반 9명
◆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 개강일시: 8월 11일 21일 개강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명정도국립세계 교육관광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서발령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상지, 송나, 저가, 불교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월 회비: 백만원(가내(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